

검교공파서울중회 송년회

검교공파서울중회(회장 권태춘)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한일장회관'에서 권영길 고문, 권태강 검교공파총회장, 권태욱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묘년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권운은 총무의 사회로 상례 행사와 상견례에 이어 권태춘 회장은 인사에서 오늘 공·사간 바쁜 이 시간에 참석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는 파죽간에 죄의를 더욱더 두렵게 하면서 상부상조, 공존공생하면서 혈족

의식을 더욱더 고취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새로나온 권영기씨(權榮基(광장중학교))의 신입인사에 이어, 권태강 검교공파총회장의 격려말에 이어 회의에 들어가 검교공파서울중회(회원수첩)에 대해 수정 및 보완키로 협의했다.

다음 권운은 총무의 경과보고와 앞으로 파죽 모두가 대동단합해 중회발전에 직·간접으로 협조,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년행사를 모두 마치고, 회식에 들어가 권영길(權寧吉) 고문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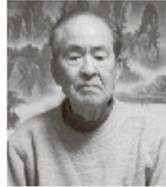


재경 검교공파중회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태춘 회장

찬 건배제로 내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으며 이날 검교공파서울중회에서 구입한 권운을 저

<권운복 편집위원>

江星 權文洙 본원 상임고문



江星 權文洙 상임고문

1985년 6월에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해 서울시민의 모습으로 정착(定着)하게 된 江星 權文洙씨(83·강릉·북야공파 32世·본원 상임고문)를 지난 1월 6일 오후 권경석 사무총장과 함께 찾았다.

권 고문은 지난해에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노환으로 자택에서 현모양처인 안성씨(이귀화) 여사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가료중에 있다.

문수씨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인생의 좌우명으로 굽이굽이 80여년의 삶을 반추하면서 현 안민낙도(安民樂道)·유종지미(有終之美)의 길을 걷고 있다.

正義(세상을 올바르게 산다), 努力(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愛助(사로 사랑하며 돕는다)는 가훈(家訓)으로 생(生)을 일관해 온 강성고문은 1929년 7월 18일 강릉군 성덕면 학동리 빈농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유년시에는 서당에서 김억경 선생으로부터 한문을 배웠으며, 이어 국립제신대·한양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수재형 학구파이며, 교사 검정고시에 합격해, 강릉고·진양고의 교감을 지냈으며, 삼척공교·삼척여고·강릉고교·덕수상고·경복고 등의 교사로 이 나라 2세 교육양성에 주력했다.

이어서 서울학원·상록학원을 설립해 원장으로 운영했으며, 중앙중진회 수석부회장에 추대되고 강성흥업(주)·진영해운(주) 회장·한국총연합회인문교육협의회장·국제라이온스협회 라이온스 지구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2004년 중앙중진회 상임고문 능동장학회 이사로서 문사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씨는 1980년 7월에 국제라이온스 협회 309A지구 동경라이온스 차타 멤버로 제3대 회장에 추대되어 봉사금을 출연했으며, 또한 미국 LA에 있는 샌츨러라이온스 클럽과 자

매결연을 맺어 매년 자매 클럽과 합동으로 시력복지 사업으로 실명자를 많이 구제했고, 또 LCIF기금으로 5,000US\$를 출연하여 국제실명구제사업에 협조하였다.

경동클럽 자체에 불우이웃돕기 기금도 매년 수십만원을 출연하였다.

江星 선생은 소학교 시절에 일본 선생에게 검도(劍道)를 배워 교내 학교 검도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으며, 취미가 탁구였다. 체육활동으로 73년부터 YMCA 회관 내 '비즈니스맨클럽'에 입회하여, 회장에 추대되면서 매일 새벽에 회원 60여명을 YMCA 버스에 태워 남산에서부터 뛰어 남산을 돌아 장충동 국립극장 운동장까지 돌아오는 운동을 나이(55세)까지 매일 아침에 실시했다.

이 내용이 '뿌리깊은 나무' 회지(會誌)에 '남산(南山)을 지키는 사나이'란 제목으로 특종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BMC골프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골프회모임을 일본 YMCA 재일동포들과 매년 봄에는 서울에서 주최하고, 가을에는 日本 YMCA가 주최하면서 한·일간 유대를 강화하면서 10여년간에 걸쳐 골프회를 이끌었다.

더불어 BMC골프회는 94년 가을 빈에서 열린 아시아 6개국(국제시니어대회)에 참가 대표선수를 출전하는 등, 국제대회에 여러차례 참가하면서 국위선양에 크게 힘쓰기도 했다.

한편 文洙 族은 개인 宗山으로 광주군 남종면 수창리 산 24-9번지 2,000 여평을 지분등기로 본인 系 宗山으로 등기 완료하고 중앙중진회 회장으로 임명되어 송덕비를 세워 2002년 12월 22일 제막식을 가지기도 했다.

부부애가 돈독한 권 고문은 슬하에 이귀화(안성씨) 여사 사이에 5남매를 두었으며 장남(泰榮)은 서울학원을 경영하고 차남(泰赫)은 운수업을, 장녀 태희(泰姬)는 아주대 전자학과 교수이고, 차녀(泰淑)은 중앙대안과과장, 3녀 교육(敎淑)은 세명대경영학과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402-3232

<권운복 편집위원>

북야공파 청장년회 정기총회

북야공파청장년회(회장:권오장)는 2012년 1월 7일 18시 장지방에서 권계동 파총회장과 권오수 고문, 권세원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태열 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오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에도 회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승조사업 및 회원 친목도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렸으며, 권계동 파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파총회 운영과 파조단소 수호에 헌신적으로 일해 타문중의 부러움을 샀으며 단결과 화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금을 주었고, 권택수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1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현 권오장 회장을 유임시키고 부회장에 권오익(시의회



북야공파 청장년회 정총에서 권계동 회장이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무국장), 권경주(LJ그로협)씨를 새로 선임하고 여흥과 정담을 나누

다 기시에 산화하였다. <권오익 청장년회부회장>

부산 부정공파 파친회 제31차 정기총회

부산 부정공파 파친회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30분에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오리 숯불구이식당에서 일족 및 회원 40여명 참석하여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권순철씨의 사회로 상례행사를 마치고 내빈소개로 부산중진회 권길상 회장과 사무국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權應奎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부산중진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과 아울러 1981년에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한 故 權應龍 부산중진회장을 지낸 역대회장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1987년 權炳萬 회장이 맡아 많은 노력으로 오늘날의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 하는데 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치하 하였고 또한 현 회장은 1996년 회를 맡아 지금까지 15 여년간을 이끌어 오면서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하여 왔음을 상기

시키고 임진년 새해에는 일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였다.

부산중진회장은 격려사로 부정공파 제31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역대 회장들의 노고와 임원들의 수고를 격려 하였으며 부정공파의 재정을 보니 어느 파문중보다 튼튼한 재정을 보유하고 된 것을 축하 하며 타파의 선도적역할을 하여 모범적인 부정공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임진년 부산중진회 신년 하례회에 많은 참석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만수무강과 행운을 기원 하였다

권영한 총무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권운철 감사의 감사보고 후 임원개선에 이어 현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 하여 현회장은 인사로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정공파친회가 되기를 당부 하였다.

이날 행사를 모두 마치고 부산중진회장의 건배제로 부정공파친회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건강을 기원 하는 건배제로 식사에 들어가 화기 애애한 가운데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재혁 부산중진회 사무국장>

흥 등 수령과 종친 20여인들과 함께 서쪽 교외(郊外)의 모은루(慕恩樓)에서 사인을 전송하고 저물게 객사로 돌아와 종친들과 또 연회를 배설(排設)하니 여러 수령과 봉사(奉事) 김용(金用)이 다 참석하여 한밤이 되어 즐거움을 다하고 파회(罷會)하니 관찰사는 또 경주부윤과 권오(權梧) 권종윤(權終允) 행가(行可) 등으로 더불어 촛불을 밝히고 태사묘의 제례(祭禮)와 종중이 친목할 규례(規例)를 의논하여 정한 뒤에 부윤(府尹) 이하 가다 물러갔다. 제례는 즉 오절일(五節日)의 행사(行祀)가 너무 번거롭고 어지러운 뿐 아니라 또한 정례(正禮)가 아니므로 다만 춘추(春秋)의 중월(仲月)의 중정일(中丁日)로 개정(改定)하여 보궐번두(篋簋籩豆-篋簋는 제사때 穀物을 담은 木器, 簋는 外角內圓, 籩는 外圓內角, 籩는 實果나 肉을 담은 竹器, 豆는 乾食物을 담은 木器)를 쓰기로 하고 절목(節目)은 별목(別科)으로 작성하였다. 아! 삼태사(三太師)의 위판(位版)은 원래 대청(大廳) 북쪽 벽에 모셨던 것인데 가정신축년(嘉靖辛丑年-서기 1542년)에 부사(府使) 김광철(金光徹)과 통관(通判) 권근(權根)이 향유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두렵고 예를 받드는 뜻이 무궁하게 전할 것이다. 행가(行可)가 상공(相公)의 명령을 받아 중건공사를 또한 관장하였고 전말(顛末)을 대략 알게 되므로 이를 기록한다. 宗報堂重新記 '後孫-宗報堂宗突卯六月'

譯抄 陵洞實記

역초 능동실기

太師廟重建記事

'後孫 權行可撰'

<지난호에 이어>

새벽에 행사(行事)할새 초헌(初獻)은 관찰사(觀察使)요, 亞獻(亞獻)은 경주부윤(慶州府尹)이요, 종헌(終獻)은 사인(舍人)이 하고 대축(大祝)은 도사(都事) 김혜(金暉)요, 집례(執禮)는 생원(生員) 권종윤(權終允)이요, 여러 집사(執事) 또한 다 성손(姓孫)으로 나누어 정하였다. 참제(參贊)한 사람은 상주목사(尙州牧使) 한술(韓述), 청송부사(靑松府使) 강복성(康復誠), 대구부사(大邱府使) 김윤안(金允安), 인동부사(仁同府使) 권경(權敬), 전첨지(前僉知) 김계신(金繼信), 초계군수(草溪郡守) 이운(李胤), 영천군수(永川郡守) 오여발(吳汝撥), 예천군수(醴泉郡守) 황임중(黃立中), 함안군수(咸安郡守) 엄황(嚴晃), 울산판관(蔚山判官) 신의립(辛義立), 경산현령(慶山縣令) 이변(李朴), 의흥현감(義興縣監) 이유허(李幼菴), 연일현감(延日縣監) 권경중(權景中), 군위현감(軍威縣監) 임길준(任吉浚), 고령현감(高靈縣監) 유직(柳植), 전천현감(全川縣監) 이명신(李明新) 등인데, 현관의 뒤에 두 줄로 차례로서 참봉(參奉) 권공삼(權公參) 이하가 두 줄을 지어 수령들 뒤에 서고 기타 삼백여인은 내정(內庭)에 들일 수 없어 인문(印門) 밖에 섰으니, 기명록(記名錄)은 묘현록(廟見錄)에 있으므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집사(諸執事)가 행사에

분주했으나 조금도 실례(失禮) 없이 제사를 마친 뒤에 차례로 물러나와 장차 음복연(飮福宴)을 시작할새 마침 비가 와서 중지하고 24일에 객사(客舍) 대문밖에 자리(祭席)를 배설고 정자(正字)의 축하연(祝賀宴)을 겸하여 거행하니 장막(帳幕)은 구름같고 구경하는 사람은 담자와 같았다. 관찰사가 북벽(北壁)을 사양하고 동편에 좌정하니 감히 작위(爵位)로써 종족(宗族)을 누를 수 없다는 뜻이다. 사인(舍人)과 도사(都事)가 그 다음 자리에 앉고 상주목사 이하 당상관(堂上官) 수령(守令)들이 한자리에 앉고 당하관(堂下官)들은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종중(宗中)의 노인 권몽삼이 서편에 좌정하니 나이가 88세였다. 제종족(諸宗族)이 모두 연치(年齒)와 향렬(行列)을 따라 종각 앞까지 열좌(列坐)하여도 오히려 부족하여 수령들 아랫자리에 분좌(分坐)하였다. 원근간(遠近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부족하여 한밤이 되어 즐거움을 다하고 파회(罷會)하니 관찰사는 또 경주부윤과 권오(權梧) 권종윤(權終允) 행가(行可) 등으로 더불어 촛불을 밝히고 태사묘의 제례(祭禮)와 종중이 친목할 규례(規例)를 의논하여 정한 뒤에 부윤(府尹) 이하 가다 물러갔다. 제례는 즉 오절일(五節日)의 행사(行祀)가 너무 번거롭고 어지러운 뿐 아니라 또한 정례(正禮)가 아니므로 다만 춘추(春秋)의 중월(仲月)의 중정일(中丁日)로 개정(改定)하여 보궐번두(篋簋籩豆-篋簋는 제사때 穀物을 담은 木器, 簋는 外角內圓, 籩는 外圓內角, 籩는 實果나 肉을 담은 竹器, 豆는 乾食物을 담은 木器)를 쓰기로 하고 절목(節目)은 별목(別科)으로 작성하였다. 아! 삼태사(三太師)의 위판(位版)은 원래 대청(大廳) 북쪽 벽에 모셨던 것인데 가정신축년(嘉靖辛丑年-서기 1542년)에 부사(府使) 김광철(金光徹)과 통관(通判) 권근(權根)이 향유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주 제목(提督) 이상성(李三省)과 학유(學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기시에 산화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지역단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1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소망의 집'을 직접 찾아 이들을 격려하고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권순한 한국외국어대 총동문회장이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한국어대 러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권병윤 씨를 임명했다.

▲권갑하 씨(54, 문경)는 지난해 12월 23일 '누이감자' 작품으로 '2011 중앙 시조 대상'을 받았다.



▲안동 천동회(회장 권기태)는 지난 12월 12일 오후 7시 안동시 동부동 서울갈비 식당에서 회원



▲권중호(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교수)가 11월 17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11년 정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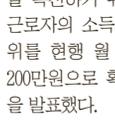
▲권이혁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본원 명예총재는 1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30일 권영세 의원(52, 서울, 영등포(을), 3선, 정보위원장)을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국내 인력의 해외 현장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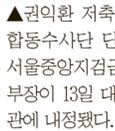
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아름다운 나눔 행사에 참석해 21개 금융회사와 함께 구세군 성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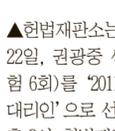
▲권택기 의원(광진(갑))은 지난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OSA유통대상 및 중소기업인 밤"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를 했다.



▲권익환 저축은행비리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팀장 부장이 13일 대통령인정비서관에 내정됐다.



▲명지전문대는 지난해 12월 21일 청소년 복지교수부 총장으로 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2일, 권광중 씨(69, 사법시험 6회)를 '2011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26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시상했다.

